

무역과 경제발전의 관계: 이론적 고찰

유 일 선*

《目 次》

I. 서론	IV. '빈곤학과'(Impoverishment School)와 경제발전
II. 자유무역이론과 경제발전	V. 경제발전 전달경로
III. 보호무역이론과 경제발전	VI. 결론

I. 서론

무역이 경제발전¹⁾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이런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196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98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남미국가들이 기존의 수입대체경제성장전략(import substitution economic growth strategy: IS)을 수출촉진경제성장전략(export promotion economic growth strategy: EP)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1)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두 용어를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단순히 총생산량증가를 의미하고 경제발전은 총생산량증가 뿐만 아니라 고용증가, 생산성증가, 소득분배, 산업구조 변화, 공업화 및 도시화를 포함한다. 그래서 공업화를 지향하며 이에 따라 고용증가, 생산성증가, 소득분배, 산업구조 변화 등을 경험하는 개도국에서는 경제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미 공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여기서는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로 경제성장을 사용한다.

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인도는 경제자유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역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 갔다. 첫째 무역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다. 즉 무역은 잉여자원을 활용하게 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분업을 촉진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은 비교우위있는 재화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얻는 무역이익(gain from trade)을 통해 양국 모두 경제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주장은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이론으로 발전하여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발전단계가 같은 국가 간 무역이 이루어질 때만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국가 간 무역을 하게 되면 저발전국가는 영원히 저발전단계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발전국가가 고발전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할 때까지 무역을 제한하고 특정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더 기여한다. 이런 흐름은 보호무역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셋째 무역은 선진국(중심국)이 개도국(주변국)을 착취하는 수단이며 국제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무역을 하면 개도국의 시장을 선진국 기업이 석권하여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경제종속은 결국 정치적 종속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개도국은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무역관계를 단절해야만 비로소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흐름은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하여 무역과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무역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다면 그 전달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자유무역이론과 경제발전

무역은 경제발전에 왜 필요한가? Myint(1971)는 폐쇄적 경제성장전략을 선택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개방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보다 실질적으로 낮다는 근거로 개방적

(outward-looking) 경제는 폐쇄적(inward-looking) 경제보다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무역이 경제발전에 가져오는 직접적인 이유를 A. Smith, D. Ricardo 등으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무역론에 따르면 무역은 양국 모두에게 두 가지 중요한 편익(benefit)-정태적 무역이익(static gains from trade)과 동태적 무역이익(dynamic gains from trade)을 제공한다. 여기서 정태이익은 무역 후 교역재(traded goods)와 비교역재(non-traded goods) 사이 자원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동태이익은 무역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발생한다.

1. 정태적 이익

A. Smith는 실물자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외국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자국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실질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타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을 가져오므로²⁾ 자유로운 교역과 거래의 자유가 모든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비싸게 드는 것을 구태여 집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분별있는 가장(家長)의 원칙이다. 제단사는 자신의 구두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제화공에게서 사며, 제화공은 자신의 의복을 자신이 만들려 하지 않고 재단사에게 부탁한다. 농업경영자는 그 어느 것도 만들려 하지 않고 각각 다른 수공업자를 동원한다. 그들은 모두 근로 전체를 이웃보다 얼마간 뛰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 생산물의 일부 또는 그 일부 가격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을 사는 편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³⁾

각 개인은 자기가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과 교환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태적 무역이익이 혼재되어 있다. 하나는 교환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교환이익(gains from exchange)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을 특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화이익(gains from specialization)이다.

2) 이런 Smith의 주장을 Viner는 D. Ricardo의 비교우위론과 구별하여 절대우위론이라 하였다.

3) Meier G. M.(1980) *International Economics: The Theory of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Ricardo는 생산기술의 차이에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을 밝히고 가장 기회비용이 적은, 즉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하여 무역을 하게 되면 양국에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이 비교우위론은 고전무역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Heckscher & Ohlin은 각국이 생산기술이 동일하고 요소부존(factor endowment)의 차이가 존재할 때 비교우위론을 정립하였다. 즉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이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할 때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무역이익이 모두 소비로 활용되면 현재 후생수준이 증가하고 투자로 활용되면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미래의 후생수준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역의 정태이익 중심 분석은 자유무역이 항상 국가 간 자원배분을 최적화시키고 정부의 어떠한 형태의 무역정책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러한 고전무역이론(classic trade theory)들에서는 무역(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된다.

2. 동태적 이익

일찍이 Smith는 무역의 동태적 이익을 강조하였지만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이 정립되고 난 이후 정태적 이익중심의 무역이론이 발전하면서 동태적 이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다. 20세기 중반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동태적 이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 잉여분출설(vent for surplus theory)

Smith는 무역은 새로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게 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생산능력은 증가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Smith이론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Myint(1958)에 의해서 잉여분출설로 발전되면서 재평가 되었다.

잉여분출설에 의하면 국제무역은 잠재적인 자원을 활성화하여 수출품 생산을 위해 경제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욕구는 '잠자고 있는 자원을 깨워 사람들에게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많은 수출품을 생산하게 한다'.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국내시장의 필요량 이상의 잉여상품의 배출구를 제공한다. Myint(1958)는 잉여

분출설은 무역초기를 설명할 때 유효하고, 비교우위이론은 상품무역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수출이 잉여분출로 작용할 때 일회적인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고 노동이 생계부문에서 광공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수출은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증가와 개도국의 산업화에 기여하게 된다.

Myint(1958)는 또한 잉여자원을 잉여토지와 결합된 잉여노동으로 보았다. 그는 잉여분출설은 자연자원에 비해 인구가 적은 개도국이 무역을 시작할 때 나타난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은 개도국이 수출을 위해 쌀이나 플랜테이션(plantation) 작물을 생산하도록 잉여토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잉여자원이 노동일 때 수출이 잉여노동을 분출할 수 있을까? 외국자본과 같은 다른 보완적인 생산요소가 존재할 때 수출은 잉여노동의 출구를 제공할 것이다. 즉 원료와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조립한 다음 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수출기업에 대부분 고용될 것이다. 즉 수출은 그 국가의 잉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그 국가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 규모의 경제 이익(economies of scale)⁴⁾

규모의 경제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무역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이익을 가져온다. 첫째 Smith가 지적한 것처럼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한 규모의 경제이익 창출이다. 즉 무역은 시장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분업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분업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여기서 무역은 노동숙련도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에너지(dynamic force)로 작용하여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창출한다.⁵⁾ 둘째 무역의 결과로 시장이 확대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R & D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무역확대는 기술혁신을 고무한다.⁶⁾ 셋째 무역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와 인적자본축적(human capital accumulation)등 외부경제효과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내생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⁷⁾

4) 규모의 경제이익을 비용측면에서 정의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개별기업의 생산에 나타나는 경우 내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산업 전체의 생산에 나타나는 경우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 한다.

5) Myint(1958), Kindleberger(1962), Bhagwati(1978), Krueger(1978).

6) Grossman and Helpman(1991).

3) 수입결제로서 수출

대부분의 개도국에 외환갭이 존재한다. 외환의 부족은 발전과정을 불연속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증가를 가로 막는다. 개도국에게 수출은 외환을 얻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수출은 수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각국은 새로운 생산설비와 희소자원을 수입한다. 그래서 수출의 변동은 경제성장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에 의한 실증분석은 수출상품가격의 변동은 한 경제의 수출과 비수출 부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 data) 또한 수출가격의 불안정성은 경제 성장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⁸⁾ 외환의 지속적인 공급은 성장과정을 원활히 하여 성장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다-서다' 문제(stop-go problem)를 해결하고, 경제를 외환의 불안정성의 효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도국의 자원을 절약해준다. 외환제약의 완화는 외환부족과 통제에 의해 발생하는 암시장 활동, 밀수와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⁹⁾

4) 경쟁이익

한 국가가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경쟁의 강한 압박으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및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한다.¹⁰⁾ 또한 외국기업과 경쟁압력으로 수출업자들은 좀 더 높은 '품질사다리'(quality of ladder)로 이동할 수 있다.¹¹⁾ 이 과정에서 무역은 그 국가의 개혁(체제와 제도의 변혁)을 촉진한다. 그래서 그 국가가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체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때 경쟁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개선을 향한 긴장감과 효과가 높아진다. 이러한 경쟁 이익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이미 확인된 장기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7)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Romer(1986)에 의해서 비롯된 1980년대에 시작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연구작업의 총체를 포괄한다. 이것이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과 구분되는 것은 경제 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는데 있다. 그래서 수확체증의 역할, 연구개발활동, 인적자본과 기술분산 등이 내생적 성장론에 보다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8) MacBean and Nguyen(1988).

9) Chenery and Strout(1966), Krueger(1998).

10) Clerides, Laul and Tybout(1998), Baldwin and Caves(1997).

11) Grossman and Helpman(1991).

5) 자본과 기술도입

개도국은 자본부족에 시달린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제약적일 때 어떻게든 해외자금에 의지해야 한다. 물론 원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도 최종적으로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발전을 원한다. 정치·경제적 종속을 원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관과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도국이 개방적이면 더욱 해외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기 쉽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은 기술수준이 낮고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부족하다. 개도국에 기술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자국에서 선진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얻고자 한다.¹²⁾ 또한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 즉 수출가공지역(export-processing zones; EPZs)에서 노동집약재 생산·수출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 이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고용창출(job creation)과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6) 기타이익

무역은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¹³⁾ 한 경제가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런 해외정보는 국내에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업가를 탄생하게 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게 한다.¹⁴⁾ 또한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제품차별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신상품 개발에 용이하다. .

12) 이것을 Gerschenkron(1962)은 '후발성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이라 한다.

13) Grossman and Helpman(1991), Edwards(1992).

14) Mill J.S.은 이것을 무역의 간접효과라 하였다.

3. 무역, 고용증가와 구조조정

핵서-올린이론에 의하면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재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저렴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노동집약재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이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실질적인 노동이동이 발생한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총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노동집약재산업에서의 빠른 노동흡수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방법을 상대적으로 싼 자본집약재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에 따라 수출상품은 이제 좀 더 자본집약재 상품화로 되고 한 단계 더 높은 비교우위사다리(comparative advantage ladder)로 이동하게 한다. 이때 수출상품구조는 노동집약재에서 자본집약재로 변화하게 된다. 즉 수출은 요소대체와 상품구조변화에 기반을 두는 다른 형태의 산업구조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¹⁵⁾ 그 결과 수출증가는 점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어진다.

한국이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한국에서 경제발전은 노동집약재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60년 후반까지 노동집약재산업에서 노동흡수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1970년 중반 노동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임금상승으로 한국기업은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재로 변화시켰다.¹⁶⁾

또한 산업화와 수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발전은 상품구조의 변화와 부문 간 자원배분을 가져온다.¹⁷⁾ 환원하면 한 국가 수출상품구조는 경제발전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¹⁸⁾ 즉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전환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출상품구조 변환이 발생한다.¹⁹⁾

15) Krueger(1995).

16) Frank *et al*(1975).

17) Fisher(1939), Chenery(1979), Syrquin(1989).

14) Dodaro(1991).

19) Yaghmaian(1994).

4.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과 소득분배에 관한 문헌은 상당히 많다. 헤커-올린-사무엘슨(Heckscher-Ohlin-Samuelson)이론은 무역을 하면 그 나라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는 계층에게 유리하게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두 생산요소, 두 재화와 두 국가가 존재하는 전통적인 모형(2x2x2모형)에서 무역을 하면 각 국은 그 나라에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한다. 그 결과 일국에서 풍부한 요소가격은 상승하고 희소한 요소가격은 하락한다.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노동풍부국이다. 무역을 하면 H-O-S이론에 의하면 노동의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자본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자본 풍부국이므로 자본의 요소가격은 상승하고 노동의 실질임금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는 이동 불가능하지만 산업간 이동은 자유롭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무역은 생산요소 간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비수출업자 간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업자는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고품질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기술 및 지식의 확산효과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단위당 생산비 절감과 신상품 생산에서 준지대(quasi-rent)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수출산업보다 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출산업의 노동자는 동일한 기술수준이라 하더라도 비수출산업의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이유이든지 수출이 한 지역에 집중되었을 때 수출지향국가는 그렇지 않는 국가보다 일인당 소득이 경험적으로 더 높았다.

무역은 가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가난은 주로 시장실패에서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역자유화가 창출하는 기회를 항시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수요충격은 전 노동시장에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정규부문의 임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시장이 분절(segmentation)되었기 때문이다.²⁰⁾

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Leff(1973)는 19세기 브라질 경제를 분석하였는데 지주는 토지에 대한 준지대 형태로, 또한 수출확대로 인한 기업활동

20) Winters(2000).

으로 노동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때 수출부문의 노동자실질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우위가 토지집약재와 자본집약재가 있는 경제에서 예컨대 남미나 아프리카 경제의 경우에서처럼 개방경제로 전환한 후 최대편익을 얻기 위해 소득보상정책을 통해 무역자유화 분배효과를 관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²¹⁾

Bernard and Jensen(1997)은 1980년대 미국제조업부문에서 무역은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력 사이의 임금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무역은 기술진보보다 더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 사이의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²⁾ 그러나 개도국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Krueger(1978)는 장기적으로 무역과 소득분배사이에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²³⁾

이처럼 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분석결과가 불분명한 것은 대부분 연구디자인이 다르고 소득분배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분배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은 생산요소 및 지역 간 소득분배와 수출업자와 비수출업자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World Bank(2002)보고서에 의하면 무역은 가난을 줄이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국내개혁의 단지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많은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들은 건전한 거시관리정책, 금융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관세 및 조세운영개선과 빈자의 이익을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다. 즉 무역정책은 경제발전과 자원배분목표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하고 다른 정책기구는 소득분배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5. ‘성장엔진’이론

18세기의 유럽국가들, 19세기 미국과 캐나다 같이 새롭게 건국된 국가들과 20세기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무역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Nurkse(1961)는 19세기 경제발전의 형태는 국제무역에

21) Spillembergo, Londano and Szekeley(1999).

22) Haskel and Slaughter(1999).

23) Fishlow(1965) 브라질 경제를, Diaz(1965) 콜롬비아 경제를, Baldwin(1965) 필리핀경제를 대상으로, Edwards(1998)는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무역과 소득분배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의한 발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은 제1차산업에서 ‘중심’(center)국가에서 ‘주변’(periphery)국가로 확산된다. 중심국가에서 원료와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주변국가에서 그것을 공급한다. 이 때 수출은 교역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노동과 자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잉여자원을 분출시켜 수출생산에 활용케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무역이 19세기에 성장엔진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20세기에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에서 1차산업에 대한 수요의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낮았다. 둘째 선진국에서 제조품 구조가 고 자연자원집약산업(high-material-content industries)에서 저 자연자원집약산업(low-material-content industries)로 전환되었다. 셋째 선진국의 총생산량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넷째 천연자원은 인공화학제품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이유로 Nurkse는 1차산품을 통한 경제성장은 과거보다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무역을 통한 전통적인 성장패턴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1차산업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이 없다면 1차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제조품 수출을 통한 성장과 국내시장에서 산출량 확대 등을 결합하는 복합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조품 수출을 통한 성장은 현재(1950) 주동력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 선진국에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개도국은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초에는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1세기 변화하는 조건하에서 제조품 수출을 통한 성장에 대한 그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교역재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어떤 개도국은 비교우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들의 비교우위를 1차산업에서 비숙련 노동집약재 산업과 숙련노동집약재 산업으로 이동시켰다. 일부 국가는 이미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자본집약재산업과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노동집약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차산업보다 더 높고 제조품의 후방연관효과는 1차산업보다 더 크다. 그리고 1980년 이래 세계시장에서 노동집약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죽제품, 여행용 재화와 핸드백, 신발류, 플라스틱 제품, 장난감 및 의류는 1980-1998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무역환경에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GATT와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오고 있고 무역자유화는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로 확

24) Nurkse(1961), Little *et al*(1970), Balassa(1978, 1982), Bhagwati & Srinivasan(1976), Krueger(1978, 1985, 1995).

대되고 있다. 개도국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제조품수출을 촉진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내무역을 확대시키는 부가가치사슬(value-added chain)을 확립하였다. 이 모든 이유로 그에 의해 논의된 무역을 통한 성장의 한계는 이제는 훨씬 완화되었고 수출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다시 주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6. 산업내무역이론(theory of intra-industry trade; IIT)

산업내무역의 증가는 즉 대체탄력성이 높은 재화들 사이에 무역은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96-2000년 총 제조품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약 70%에 이르렀다.²⁵⁾ 산업내무역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 발생하는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내무역형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간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개도국에서 산업내무역은 선진국보다는 훨씬 덜 관찰되었다. 헤셔-올린이론(Heckscher-Ohlin theory)이 요소부존의 차이에 바탕을 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새로운 무역이론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내무역현상을 설명하고 있다.²⁶⁾

이 이론에 의하면 산업내무역을 통해서 소비다양성 확대와 같은 정태적인 자원분배이익이 발생하고 규모의 경제와 결합된 동태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무역에 의한 특화생산으로 각국은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에서 소비할 수 있다. 또한 산업내무역은 교환의 결과로 더 낮은 가격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생산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제공한다.²⁷⁾

수직적 산업내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은 최종재의 부품 무역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은 노동비 절감을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한 개도국에서 조립한다. 이런 생산은 개도국에서 가공조립무역을 촉진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25) OECD(200).

26) Lancaster(1980), Krugman(1979), Helpman(1981).

27) Greenaway and Milner(1986).

III. 보호무역이론과 경제발전

고전무역이론은 자유무역이 최적 자원배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자유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태이익은 자유무역으로 전환할 당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태적인 경제발전에는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다.²⁸⁾ 그래서 자유무역하에서 정부가 무역정책을 통해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 유치산업보호론

1). 유치산업보호론의 논리

일찍이 List는 19세기 독일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는 기여할 수 없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List는 각국은 채취수렵-농업-농공-농공상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이미 공업화를 이룩하여 농공상 단계에 도달한 영국과 공업은 유치한 수준에 있고 주요 생산품이 농산품인 농공단계인 독일이 무역을 할 때 비교우위에 의하면 영국은 공산품에 비교우위가 있어 공산품을 특화생산하여 수출하고 독일은 농산품에 비교우위가 있어 이것에 특화생산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독일은 경제발전의 최고단계인 농공상단계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이 농공상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는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²⁹⁾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야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 한다.

이 이론은 근본적으로 초기에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일시적인 발전기간이 경과한

28) Krueger(1981)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전무역이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

29) 유치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산업 중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첫째 외부경제가 있는 산업이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과소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량확대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일시적인 보호 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개방 후의 동태적 보호이익이 보호기간 동안의 정태적 무역손실을 보상하고 남음이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이 일정기간 보호 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Mill's Test라 하고 보호 후 후생수준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Bastable's Test라 한다.

후에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타당하기 위한 조건들로서 Krueger(1984)는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현재는 비경제적이나 발전되면 비용의 충분한 감소를 실현하여 최초의 초과비용이 다른 투자들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동일한 비율로 보전되는 산업이 존재한다.

둘째 비용감소의 일부는 산업내의 기업들 또는 전체산업이 창출하는 외부경제효과에 기인한다.

셋째 실제로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한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정태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고려해야 하고 공업부문에는 외부경제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인 근거로 한다. 즉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개도국도 일정기간 공업부문을 보호하면 공업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공업부문에서 얻어진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가 다른 산업에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해 간다. 따라서 개도국은 일시적으로 공업부문을 보호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은 독립초기에 원료를 수출하고 당시 선진공업국이던 영국 및 유럽국가들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무역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업부문의 보호를 통해 공산품부문에 비교우위를 확보하였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산업화가 늦었던 독일이나 일본도 보호무역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자동차산업도 유치산업보호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초기에 한국은 자동차수입을 금지하였고,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 후 수입을 개방하였다. 만일 한국이 초기에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였다면 외국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을 점유하게 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외국 자동차 수입이 금지된 동안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생산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 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유치산업보호론의 한계

유치산업보호론은 경제발전정책으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실패사례에 비해 성공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³⁰⁾ 유치산업보호를 통한 경제발전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민간기

30) 인도나 파키스탄은 수 십년 동안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국가의 주요수출품은 중화학공업 제품이 아니라 경공업제품이다.

업보다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의 실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만일 정부가 유치산업을 잘못 선정하면 보호비용만을 부담하게 된다. Krueger and Tuncer(1982)는 터키의 경우 유치산업론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사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유치산업론이 타당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는 산업은 덜 보호를 받는 산업보다 비용이 빨리 감소해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할만한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즉 터키의 경우 무역에 대한 개입이 유치산업론에 의해 합리화될 수는 있으나 실제 개입의 패턴은 유치산업론에 의해 기대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어떤 산업을 보호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보호의 타당성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런 보호가 없었어도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보호기간 동안의 비용은 불필요한 손실뿐이다. 이 유치산업보호비용을 다른 산업에 지출하였다면 그 산업이 더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주요 수출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사례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없었더라도 한국의 성장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후자는 어떤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은 산업정책보다는 그 국가의 요소부존자원과 기술수준 등의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³¹⁾

셋째 정책결정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유치산업보호는 일시적이어서는 안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단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의 보호조치를 철폐하기는 어렵다. 국제경쟁력의 확보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호산업은 보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호를 주장하면서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보호를 철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넷째 정책수단의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Johnson(1965)은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무역에 대한 개입보다는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소비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Baldwin(1969)은 유치산업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산업자체에서의 투자는 국내가격상승에

31) 김신행·김태기 국제경제론 2005, p 224

의해 수익성을 갖게 되지만 관세부과자체는 외부효과의 이익을 최초의 투자기업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유치산업에의 투자기피현상은 상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³²⁾ 이렇듯 어떤 유치산업에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무역에 대한 개입이 유치산업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보호론이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최적정책수단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2. 유치산업보호론의 적용

1950-60년대 대부분 개도국들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이들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치산업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경제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부경제효과와 주요원천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입대체경제성장전략과 수출촉진경제성장전략으로 나뉜다. 수입대체전략은 외부효과의 주요원천이 국내생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든 국내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단을 구사하는데 반해 수출촉진전략은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도 외부효과의 주요원천으로 파악하고 국내생산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수입대체전략

일반적으로 많은 개도국들은 유치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이중적 노동시장의 임금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또한 국제수지 균형유지를 위해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최종재수입에 높은 관세나 쿼타(quota)를 부과하고 중간투입물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높은 실효보호율을 유지함으로써 최종재의 국내생산을 유인하였다. 수입부품의 최종적인 조립 역시 저금리, 용이한 신용대부, 외환배당, 공업단지의 제공, 낮은

32) 외부효과의 원천이 종업원의 훈련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관세부과에 의해 한 기업이 처음으로 유치산업에 투자하여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산업에 나중에 진입한 기업이 최초의 기업이 훈련시킨 종업원을 스카웃함으로써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시설료, 유리한 세금공제(tax allowance)등의 보조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생산자들이 기존의 국내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기술이 단순하고 수요량이 확실한 최종소비재의 생산을 시작하기 쉽다. 둘째 수출촉진전략에서는 수출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수입대체전략에서는 재원조달이 필요없어 정책의 실사가 용이하다. 셋째 개도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면 외국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므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전략은 많은 국가에서 큰 희생을 낳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³³⁾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첫째 개도국들은 수입공산품의 효율적인 대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둘째 수입대체정책은 공업화와 국제수지유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셋째 이 정책들은 경제내에서 가격(임금, 이자율) 구조의 왜곡을 유발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넷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역사적으로 1950년대 이런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이 수출촉진전략을 채택한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훨씬 못 미쳤다.³⁴⁾ 그래서 1980년대 브라질과 멕시코는 수출촉진전략으로 변경하였다.

2.) 수출촉진전략

자유무역은 정태적 이익과 동태적 이익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금융시장의 미발달, 자본과 기술의 부족과 사회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에서 무역은 정태적 이익과 동태적 이익을 충분히 시현(revealed)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무역이 가지는 잠재적 이익을 실질적 이익으로 시현하는 정책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초기에 유치산업의 생산품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에

33) Bhagwati, J. and Krueger, A.(1973),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May):418-427, Baer, W.(1972), "Import Substitu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Spring):101-108

34) 남미 3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은 1960-1990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이 3.9%인 것에 비해 동아시아 3국(한국, 홍콩, 싱가포르)은 8.3%를 기록하였다.

서 보호하고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나서 자국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쿼터를 철폐하는 무역자유화, 외환시장에서 정부개입을 철폐하는 환율자유화 그리고 자본 시장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자유무역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촉진정책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을 통해서 얻는 실질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부경제효과를 이끌어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개도국 중에서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이러한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대외개방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높은 경제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수출촉진정책의 어떤 요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출촉진정책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기술 개발과 비용절감에 노력하게 된다. 즉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국내기업에게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수입대체기업은 차단된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성증가,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³⁵⁾

둘째 수출촉진전략에서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Krueger(1978)는 수출촉진전략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그것이 비록 수입대체단계에 있더라도 장차 국제시장에서 판매를 예상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나 수입대체전략은 보호된 국내시장의 이윤가능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 건설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출촉진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얻게 되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Keesing(1967)은 수입대체에 의한 지나친 보호가 인적자원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강조하였다. 관세당국에서 시작하여 외환을 통제하고 수입권을 배분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정부관리들은 부패와 뇌물수수의 교묘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경영자들은 정치적 연계관계에 더 신경을 씀으로써 기술습득이나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소홀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촉진전략은 경쟁압력으로

35) Keesing(1967).

학습효과와 선진기술의 습득을 유인하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과급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수출촉진비용은 수입대체비용보다 정책수립자에게 쉽게 인식된다.³⁶⁾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촉진비용은 정부예산을 통해 보조금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되면 수출촉진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비용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지나친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할 때 견제할만한 압력단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 둘째 수출촉진전략하에서는 기업의 생산물이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므로 정책수립자는 국내시장보다는 국제시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국내시장에는 거래에 규제를 가하거나 국산제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어떤 양적규제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은데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과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비용이 수입대체전략에서 더 크게 된다. 셋째 규제자체는 수출촉진전략하에서는 수출활동에 이윤이 발생하게 할 수 없으나 수입대체전략하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제거하거나 강화시킴으로써 이윤가능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전략하에서는 보다 기업에 대한 정부관리의 영향력이 크게 된다. 기업가는 이윤이 정부관리의 결정에 의존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지나친 개입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IV. ‘빈곤학파’³⁷⁾(Impoverishment School)와 경제발전

고전적 자유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은 정태적 이익과 동태적 이익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성장의 엔진’을 제공한다. 그러나 Stolper-Samuelson정리에 의하면 국내 계층간 소득분배

36) Bhagwati-Krueger(1973).

37) ‘빈곤학파’라는 용어는 Fu(2004)가 *Expor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15에서 썼던 용어로 무역이 개도국을 빈곤하게 만든다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 같다.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은 Prebisch(1950)의 교역조건악화설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Frank(1976), Amin 등에 의해 마르크시즘과 결합되면서 무역은 중심국(core)이 주변국(periphery)을 착취하는 수단이므로 정치혁명을 통해 중심국과의 무역단절을 주장하였다. Wallerstein은 기존 국제질서는 중심국과 주변국사이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무역이 이런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종속이론은 결국 정치혁명을 통해 중심국과의 무역단절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보인다. 즉 자본풍부국은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이익의 분배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

그러나 일군의 학자들은 국가 간 이익배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서 무역이 성장엔진이라는 주장과 대조적으로 무역은 개도국을 궁핍하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을 '빈곤학파'라 한다. Prebisch(1950), Singer(1950, 1975)는 무역을 하면 선진국은 제조업에 특화하고 개도국은 주로 1차산품에 특화한다. 이런 기본구조 차이로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³⁸⁾ 무역이익은 선진국에게로 집중되고 개도국은 오히려 궁핍해지고 경제구조는 선진국에 종속되어 간다.³⁹⁾ 그래서 선진국은 개도국과 어떤 관계- 무역이익, 투자이익, 1차산품 또는 제조품에 관련이 있는 기술이전 등에서도 이익수혜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는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획득한 부분만큼 개도국은 상실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외개방을 하면 개도국의 시장을 선진자본주의 기업이 석권하여 개도국은 종속되고 경제종속은 결국 정치적 종속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경제발전은 세계자본주의와 관계를 단절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⁴⁰⁾

그 외 이들 학파가 주장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이익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적 지배와 종속관계를 심화하는 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의 자원시장과 상품시장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선진국의 힘
2.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을 통하여 국제적 자본가에 의한 저개발국 국내경제의 지배의 확대
3. 희소원자재에 대한 선진국의 선점

38)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생산성의 증가가 임금인상과 이윤증대를 흡수되어 가격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노동조합이 발달되지 않아 생산성 증가가 임금인상으로 반영되지 않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농산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공산품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농산품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간다.

39) 자유무역론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 하였다. Bhagwati(1958), Johnson(1967)

40) Frank(1976)

4. 선진국에 의한 과학기술의 선별수출
5. 수입대체적인 관세장벽을 우회한 다국적 기업들의 독점적 착취행위
6. 개도국의 통제된 시장에 값싼 상품을 덤핑하여 공업화를 좌절시키는 선진국의 힘
7. 교육제도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인적자본축적 상실
8. 국내의 이중경제구조를 영속화하고 심화시키는 원조정책
9.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1차산품이나 경공업제품에 특화하게 하는 국제무역이론과 정책
10.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부적절한 국제적 전문직업인 기준을 내세우는 부적당한 대학 교육방법을 전이함으로써 의사, 엔지니어, 전문기술자, 경제학자들이 외국학위를 취득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사태의 유발
11. 국제적인 두뇌유출(brain drain)
12. 수입 외국영화나 잡지광고 등을 통하여 선전함으로써 부유층의 국내외에서의 호화 소비를 조장하는 비도덕적인 전시효과

이와 같은 내용은 학자들 간 많은 이견과 논쟁이 전개되었다. Todaro(1979)는 “저개발의 모든 폐해를 부유한 국가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는 쉽고 위로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저개발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외국에서 기인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논리에도 일정한 현실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빈곤학과 분석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본구조의 차이와 무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이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주장은 몇 개의 실증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⁴¹⁾ 더욱이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의하면 성장과정에서 인적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의 차이에 의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확대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술과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도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기술집약재에 특화하고 1차산품을 수입함으로써 선진국들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성장은 아직도 자원자원, 단순노동과 물적자본 증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 요소부존과 기술의 관련

41) Sapsford(1988), Bloch & Sapsford(1997).

성이 약하고 기술흡수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R&D전과효과는 제한적인 것 같다. 더욱이 국제무역과 불완전경쟁으로 기술혁신적인 선진국은 일인당 소득이 개도국보다 더 높는데 이것은 신상품에서 준지대(quasi-rent)를 발생하기 때문이다.⁴²⁾

결국 빈곤학파의 주장은 현실경제에서 선진국과 무역을 단절하거나 최소화하는 수입대체경제성장전략(import-substitution economic growth strategy)으로 나아간다. 즉 수입품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정책(관세, 쿼타, 보조금)을 사용한다. Krueger(1998)는 무역이 빈곤요인이다 라는 주장은 무역의 성장효과를 정태적 측면에서만 보고 비교우위의 동태적 측면과 무역의 동태적 이익을 무시한 것으로 빈곤학파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전략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하였다.

개도국에서 수출촉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업화에 성공하여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빈곤학파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실제로 이 전략을 채택한 많은 중남미국가들이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남미국가들이 수출촉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빈곤학파의 논리는 그다지 현실적으로 입증한 근거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ebisch-Singer 가설은 세계경제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면 무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경제발전 전달경로

1.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전제조건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장한 무역이익이 실현되어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대외개방 정책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출이 반드시 경제발전을 이끌어낸다고는 보지 않는다. Kindleberger(1962)는 수출이 자본축적, 기술변화, 자원재분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때만이 경제발전에

42) Krueger(1979).

주요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효과에 의한 외부경제효과와 지식확산효과가 특정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고 수출부문은 고립된다. 경제는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이 분리되는 이중경제구조하에서 수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이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으로 작동하려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첫째 실효성있는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작동되어야 한다. 즉 수출부문의 학습효과, 지식과 외부경제효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어 산업 전체의 규모의 이익과 신기술개발 등이 창출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연관효과가 적으면 수출부문의 이런 효과가 특정지역에만 고립되어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부문에 파급효과가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⁴³⁾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하는 제조품 수출증가는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통해 부품관련 공급산업의 확장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도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도할 때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간의 연관효과는 제약적인 가공무역형태를 이용한다. 즉 일정한 수출촉진지역(export promotion zones: EPZs)을 설치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드리고 수입반제품 및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수출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수출촉진지역의 확산효과는 적을 것이다. Balasubramanyan(1988)은 EPZs는 자유무역이라기 보다는 자유무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차선책의 특징이 있으며 그 결과가 항상 유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경제에서 수출촉진지역으로 이동한 노동력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0이면 수출촉진지역의 확립으로 이 경제가 얻는 이익은 양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경제의 산업구조가 수출촉진지역으로부터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때 경제발전에 유효하게 된다.

둘째 수출부문의 생산기술은 타부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수출부문의 기술이 다른 부문과 차별성이 없다면, 기술진보없이 수출부문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는 지식확산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즉 비숙련노동을 사용하는 분야보다는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출부문에서 유용한 연관효과를 건인해야한다. 수출부문의 기술 필요량은 교육을 통해 얻는 인적자본형성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더욱이 수출부문의 실무교육은 노동력이동을 통해 다른 부문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수출부문에서 숙련

43) Hirschman(1958), Meier(1995).

노동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인이다.⁴⁴⁾ 그러나 수출부문에서 기술확산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사회하부구조, 적극적인 기업가와 적정수준의 인적자본과 같은 경제발전의 기본요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수출이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발전수준이 필요하다.

셋째 총산출량에서 제조품 수출비중이 높고 실질적인 증가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차 산품 수출은 비수출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⁴⁵⁾

넷째 무역상대국의 산업구조와 발전수준이 수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쌍무 무역패턴이 기술리더국과 이루어질 때 지식확산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R&D지출이 실질적인 경우 범국가 간 기술확산효과는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⁶⁾

다섯째 수출부문의 성장으로 다른 부문 및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노동력 이동은 생산성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만약 수출부문 성장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생산성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고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력 유입산업 및 지역의 사회적 편익이 노동유출산업 및 지역의 사회적 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수가 있다. 무역관련 문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인구이동과 경제발전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⁴⁷⁾

여섯째 무역자유화의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 어떤 국가도 처음부터 자유무역에 가까운 정도로 개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최소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유화정도를 높여간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무역자유화는 수입쿼타제 철폐, 관세인하, 환율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자유화순서로 진행되길 권고한다.⁴⁸⁾ 이러한 순서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자유화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메커니즘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44) Caves (1971).

45) Fosu(1996, 2000).

46) Keller (1987, 2000).

47) Krugman (1991), Faini (1996), Bhagwati (1997), Puga (1999).

48) Michaely, Papageorgiou and Choski (1991), Falvey and Kim(1992).

2. 무역과 경제발전간의 관계

지금까지 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 수출이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 (2) 자원 재분배의 특화
- (3) 시장확대
- (4) 고용기회 확대
- (5) 저축증가와 자본축적
- (6) 수입품의 결제대금
- (7) FDI 견인
- (8) 규모의 경제
- (9) 기술이전과 지식확산
- (10) 경제와 효율성 제고
- (11) R&D제고
- (12) 품질향상

<표5-1> 수출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달경로

수출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시장확대 -고용기회 확대	① 고용증가	경제발전
	-잉여분출에 의한 생산능력 -시장확대 -고용기회 확대 -저축증가와 자본축적 -수입품의 결제대금 - FDI 견인	② 생산량증가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수입품의 결제대금 -FDI 견인 -규모의 경제 -기술이전과 지식확산 -경제와 효율성 제고 -R&D제고 -품질향상	③ 생산성증가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④ 소득분배	
	-자원 재분배의 효율성	⑤ 구조조정, 산업화 및 도시화	

이러한 요인들이 고용증가, 생산량 증가, 생산성증가, 소득분배, 산업구조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 같은 5개의 발전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달 메카니즘이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할 때 무역이익은 실질적이다. 이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5개의 발전경로들 간에도 상호연관관계를 갖는다. 즉 수출에 통해 고용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량 증가가 다시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생산성증가는 생산량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분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생산량증가를 가져오고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화 및 도시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장기 경제발전은 수출이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기존문헌을 통해 무역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역은 성장의 엔진이며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이다. 자유무역론자들은 무역이 경제적 이익과 동태적이익을 통해 양국 모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역을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보호무역론자들은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무역을 제한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 빈곤학파들은 무역은 개도국의 빈곤을 초래하여 선진국에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므로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을 철폐하여 이 같은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등이 무역을 통한 대외개방정책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무역을 최소화하며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한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발전이 크게 뒤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무역이 경제발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항시 경제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즉 개도국에서 수출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출은 경제발전을 위한 양 날개의 칼처럼 보인다. 개도국

에서 무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전달메커니즘이 향상되었을 때만이 무역이 경제발전의 엔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에 이중구조를 형성하여 외부경제효과 억제, 지식확산의 제약, 소득의 불평등, 노동시장의 분절(segment) 등 사회를 양극화하여 갈등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양날의 칼날에 직면해서 개도국은 무역의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무역이 성장엔진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 및 개선정책으로 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신행 · 김태기(2005) 국제경제론, 법문사
- Baer, W.(1972), "Import Substitu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Spring):101-108
- Balassa, B.(1978),"Export and Economic Growth: Further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2:181-189
- Balassa, B(1982),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cs*(New York 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lasubramanayam, V.N.,"Export Processing Zon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D. Greenaway(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London: Macmillan)
- Baldwin, J. and Caves, R.(1997), "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Industrial Performance: Allocative Efficiency, Productive Efficiency and Turbulence", *Harvard Economics Discussion Paper*, 1809
- Baldwin, R.(1969),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3:295-305
- Bhagwati, J.(1958), "Immiserizing Growth: A Geometrical Note, *Review of Economic Studies*, 35(3):201-205
- Bhagwati, J.(1978),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s: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Cambridge, MA:Ballinger for NBER)
- Bhagwati, J(1988), "Export-promoting Trade Strategy: Issues and Evidenc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3:27-57
- Bhagwati, J (1997), " The Brain Drain: International Resource Flow Accounting, Compensation, Taxation and Related Policy Proposals', in V.N. Balasubramanayam (ed.) *Writing on International Economics*(Oxford University Press)
- Bhagwati, J. and Krueger, A.(1973),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May):418-427

- Bhagwati, J. and Srinivasan, T.N.(1976),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dia*(Cambridge MA: NBER)
- Bloch, H. and Sapsford, D.(1997), "Some Estimates of Prebisch and Singer Effects on the Terms of Trade between Primary Producers and Manufacturers", *World Development*, 25.11:1873-1884
- Chenery, H.B.(1979), *Structural Change and Development Polic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ery, H.B. and Strout, A.(1966),"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6.3:679-733
- Clerides, S.K., Laul, S. and Tybout, J.R.(1998),"Is Learning by Exporting Important? Micro Dynamic Evidence form Columbia, Mexico and Morocc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3), 903-948
- Dodaro, S.(1991),"Comparative Advantage, Trade and Growth: Export-led Growth Revisited", *World Development*, 19(9):1153-1165
- Edwards, S.(1992)," Trade Orientation, Distortion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9(1):31-58
- Edwards, S.(1998), "Openness,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What do we Really Know?", *Economic Journal*, 108(447):383-398
- Faini, R.(1996), "Increasing Returns, Migrations and Coverag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9.1:121-136
- Falvey, R and Kim, C.D.(1992), "Timing and Sequencing Issues in Trade Liberalization", *Economic Journal*, 102(413):908-924
- Fishlow(1965) cited in Krueger(1978)
- Fosu, A.K.(1990),"Export Composition and the Impact of Exports o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Economies", *Economics Letters*, 34:67-71
- Fosu, A.K.(1996), "Primary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19(4):465-475
- Fu, Xiaolan(2004), *Expor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erschenkron, A.(1962),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away, D. and Milner, C.(1986),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Manual of Policy Analysis* (London: Macmillan)
- Grossman and Helpman(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MIT press
- Haskel, J and Slaughter M.(1999), "Trade, Technology and UK Wag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W6978*
- Helpman, E. (1981),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esence of Product Differentiation, Economies of Scale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3):305-340
- Helpman, E and Krugman, P.(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 Hirschman, A.(1958),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ohnson, H.G.(1965), "Optimal Trade Intervention in the Presence of Domestic Distortion", In R.E. Baldwin *et al Trade,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 3-34
- Johnson, H.G.(1967), "The Possibility of Income Losses from Increased Efficiency or Factor Accumulation in the Presence of Tariffs, *Economic Journal*, 77(Mar):151-154
- Keesing, D.B.(1967), "Outward-look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conomic Journal* (June):419-427
- Keller, W. (1987), "How Trade Patterns and Technology Flows Affect Productivity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831,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Washington DC
- Keller, W. (2000), "Do Trade Patterns and Technology Flows Affect Productivity Growth?", *World Bank Economic Review*, 14(1):17-47
- Kindleberger, C.P.(1962), *Foreign Trade and the National Economy*, (New Haven and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Krueger, A. O.(1978),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s and Attempts and Consequences*,(Cambridge, MA: Ballinger for NBER)
- Krueger, A. O.(1981) "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in *Trade and Growth of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acific Basin*, KDI: 3-27
- Krueger, A. O.(1982), "An Empirical Tes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2: 1142-52
- Krueger, A.(1995), *Trade Policies and Developing N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Krueger, A.(1998), "Why Trade Liberalization is good for Growth," *Economic Journal*, 108(447):1513-1522
- Krugman, P.(1979),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3):469-479
- Krugman, P.(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483-499
- Langcaster, K.(1980), "Intra-industry Trade under Perfect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2):151-176
- Leff, N.H.(1973), Tropical Trade and Develop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Brazilian Experi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3):678-696
- Little, I et al(1970),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cBean, A. and Nguyen, D. (1988), "Export Instability and Growth Performance," in D. Greenaway(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London Macmillan)
- Meier G. M.(1980) *International Economics: The Theory of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y, M., Papageorgiou, D. and Choski, A.(1991), Lessons of Experience in the Developing World, 7 in D. Papageorgiu, M. Michaely and M. Choski(ed),

Liberalizing Foreign Trade(Oxford: Basil Blackwell)

- Myint, H.(1958), "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 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68(270), 317-337
- Nurkse, M. (1961)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Wicksell Lectures (Oxford: Basil Blackwell) OECD(2002) *OECD Economic Outlook*, 72(Paris: OECD)
- Puga, D.(1999), "The Rise and Fall of Regional Inequalities", *European Economic Review*, 43(2):303-334
- Romer, P.(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1002-1037
- Sapsford, D(1988),"The Debate over Trends in the Terms of Trade", in D. Greenaway,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London: Macmillan)
- Spillembergo, A., Londano, J. and Szekeley, M(1999), "Income Distribution, Factor Endowments and Trade Opennes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9(1):77-101
- Syrquin, M.(1989),"Patterns of Structural Change," in Chenery, H.B. and Srinivasan, T.N.(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I*, (Amsterdam: North-Holland)
- Todaro, M.P.(1977),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gman
- Yaghmaian, B.(199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xports, Development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ing the Neoclassical Theory of Export-led Growth", *World Development*, 22(12):1977-1995